

흠어진 민주 세력 대통합 과제로

■ 민주 정세균號 출범 1년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임기 2년 가운데 반란점을 돌게 된 것이다.

정세균 대표 체제는 안으로는 당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제1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Mr. 스마일'이라는 별명답게 특유의 '포용 리더십'으로 대선과 총선 연패로 존립 위기에 처한 당을 추스르고 재창당의 초석을 다지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싸울 때 단호히 싸우되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새로운 야당 모델 정립에 나선 그의 실험은 여성(野性)이 부족하

'친노·구 민주계·정동영 복당'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미디어법' 처리 미진엔 리더십 상처

다는 당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당내 '친노 386'으로 대변되는 주류와 비주류 그룹 간의 계파 갈등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여야 입법대치와 중진 연립과 연초, 본회의장 접거라는 강경한 대역 전략을 내세우며 '투사'로 변신, 선명성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썼다.

이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동영 의원의 공천 문제로 리더십의 최대 시험대에 올랐지만 공천배제라는 승부수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수도권 승리로 당내 입

지를 다졌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조문정국을 주도하면서 제1야당 리더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외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반(反)MB 전선'의 구심점을 재확인했고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으로 당 지지율이 한나라당과 역전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숙제는 녹록치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물론 막힌 등원 해법을 풀어나가면서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지지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를 안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조문정국의 반사이익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한다. 지지율 하락이 현실화될 경우, 그의 리더십은 거품으로 평가되며 상당한 상처를 입을 전망이다. 여기에 '뉴민주당 플랜'을 통해 당 정체성과 좌표를 정립해야 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특히, 외곽의 친노그룹과 구 민주계 등 '민주개혁진영'의 통합을 통해 숙원인 전국정당화를 이루는 것도 과제다. 이와 맞물려 언젠대 계파갈등 소재로 불거질 수 있는 정 의원 복당 문제도 풀어야 할 집이다.

무엇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성적은 민주당의 미래는 물론 대권 도전을 바라보고 있는 정 대표의 앞날을 좌우할 최대의 변수다.

/임동욱 기자 tuim@

■ 丁대표 취임 1주년 인터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일 "세력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화 개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제2의 창당에 비견되는 수준의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득권'과 관련, 정 대표는 "민주당이 갖는 기득권은 '공천권'이라면서, "영남 지역이 취약한데 공천단체별로 최소한의 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보장돼야

"기득권 버리고 제2창당 수준 대통합"

"영남 비례 대표, 호남 뉴 페이스 영입하겠다"

한다고 생각하고, 비교적 강한 호남지역은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 심기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저변에서 존경받는 풀뿌리 엘리트 영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남 지역 인재 영입'에 대해 "빠를 수록 좋다. 지방선거가 내년 6월 초인데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며 "호남지역 정치지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당 외부 인재들에 대한 문화 개방 제안들이 있다"며 호남에서의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당 외곽 친노세력과의 통합 문제와 관련, "친노를 포함해 대등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49세가 끝나면 본격 논의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이 대통합하는 그런 시각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정동영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선 "지금 우리 당은 대표적 과제인 엠비악법 저지 등 대단히 중요한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면서 "현재로는 당의 분리가 일어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을 들춰낼 적절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 문제에 대해 정 대표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헌 추진은 정치 상황을 호도하거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北 단·중거리 미사일 南 시설 위협"

징후 조기 탐지 어렵고 비행시간 짧아 요격 불가능

북한이 지난 2일과 4일 각각 발사한 KN-01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계열, 노동미사일은 남한의 군 시설과 주요 국가 전략시설을 타격권에 두고 있다.

북한은 4일 오전, 오후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잇따라 발사했다.

발사된 미사일 7발은 모두 사거리 400~500km로 파악됐으며, 정보 당국은 이 중 1~3발은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이며 나머지는 스커드-C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북한이 KN계열의 단거리를 개발하고 스커드급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해군기지와 활주로 등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국가전략시설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스커드와 같은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발사 4~6분이면 수도권에 도달하는 스커드 미사일은 길이 11.2m, 직경 88cm, 무게는 20t에 달한다.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군 병사 한 명이 5일 신의주 인근 압록강 제방에서 영내에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염소를 핏겨온 표정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북한은 전날인 4일 하루 동안 동해상에 7기의 미사일을 발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정부, 비정규직 해고 '불구경'



임동욱

서울 취재팀장

비정규직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말로는 대량 해고 사태를 걱정한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 해고를 부추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훈병원, 농협 중앙회,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법 개정이 여야 간의 대치로 불투명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으나 정치권에 책임을 떠 넘기는데 주력하며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그동안 수차례 '해고 대안'을 예고하면서도 지금까지 정확한 해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대가업 인사 담당 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 해고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느냐"며 마치 '불구경' 하는듯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고용시장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고 해고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오히려 '기한이 만료된 비정규직은 당장 해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고민해왔던 고용시장에서는 비정규직 해고에 적극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해놓고도 오히려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 등에서는 정부의 해고 대안 우려에는 '악어의 눈물', 공공기관의 해고 움직임에는 '해고 자작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반적인 여론도 비정규직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껏 법안 개정을 미뤘을 정치권에 있지만 정부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조만간 제시될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해신책에도 불응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이 인적해신을 포함한 어떠한 국정해신책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부자(강남 땅 부자) 정권이라는 눈총을 받은 이명박 정부라는 점에서 진정한 국정해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절망과 한숨을 우선 감싸 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tuim@kwangju.co.kr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p>메가박스 구. 롯데시네마 www.megabox.co.kr</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최고급관 2관 킱콩을 들다 (전세) 3관 킱콩을 들다 (전세) 4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 이프유 주차량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저가 관람요금 부과</p>	<p>콜롬버스 시네마 www.joybc.com/1588-7941</p> <p>1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2관 마더(18세)/터미네이터(15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4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5관 킱콩을 들다 (전세) 6관 킱콩을 들다 (전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8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세)/여고괴담5(15세) 9관 펠렘123(15세)/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 10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p>	<p>하미 시네마 www.hamcinema.co.kr/1588-9120</p> <p>1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펠렘123 (15세) 5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6관 마더 (18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세) 8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9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10관 킱콩을 들다 (전세)</p> <p>• 500여다 넘는 주차량(3시간 무료) • 305 매일 심야 • 이프유 주차량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p>	<p>씨너스 전대 www.cinus.co.kr/1544-0070</p> <p>1관 킱콩을 들다 (전세) 2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세)/여고괴담5(15세)/마더(18세) 3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4관 터미네이터(15세)/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12세) 5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6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7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제일 시네마 www.primcinema.com/www.jelcinema.co.kr</p> <p>1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2관 트랜스포머: 패자의역습 (12세) 3관 거북이 달린다 (15세) 4관 킱콩을 들다 (전세) 5관 터미네이터(15세)/박물관이 살아있다2(전세) 6관 여고괴담5: 동반자살 (15세)</p> <p>• 무료주차 3시간 (상무점) • 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